

미국 TSA 「Horizon 25」 전략과 시사점

– 검색 민관협력 재편과 C-UAS 대응 강화 –

발행일 2026. 8. 27. | 제2026-4호

TSA는 향후 25년의 운영 방향을 ① 검색대 현대화 ② 여행객 편의 ③ 다중 교통 보안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, 무결점 임수 수행 의지 표명

□ 발표 개요

가. TSA 「Horizon 25」 발표 배경

- TSA는 2026. 8. 24. 창설 25주년을 앞두고 **향후 25년의 운영방향**을 담은 「Horizon 25」 전략을 발표하고, 기존 보안 체계를 현대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
- 3대 핵심목표는 ① 검색대 현대화 ② 여행객 경험 향상 ③ 항공·철도·도로 등 다중 교통수단 보안 강화이며, ‘무결점 임무(zero-fail mission)’ 수행을 위한 국가 교통체계 전반의 보안 역량 확보를 지향
- 다중 교통수단 보안은 항공뿐 아니라 철도·도로·대중교통 및 파이프라인 등 TSA가 관할하는 교통 분야의 보안 체계를 함께 강화한다는 의미

나. 주요 추진과제

- TSA PreCheck 고도화와 승객 검색절차 개선을 추진하고, 신규 보안기술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조달 절차를 간소화하며 산업계와의 협력을 확대
- 무인기 위협 대응 역량을 주요 과제에 포함하고, 2026년 9월 본부·현장 인력을 소집하여 과제별 세부 이행방안과 현장 적용계획을 논의할 예정

□ 검색 민관협력 재편

가. Gold+ 추진과 한계

- Gold+는 TSA가 2026. 5.15. 사전조달공고와 5.21 산업계 설명회를 통해 공개한 자발적 참여 방식의 민관 협력 모델

- 참여공항이 민간업체를 통해 검색 인력뿐 아니라 검색장비의 도입·운영·유지관리까지 일괄 수행하도록 하여, **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한 검색대 현대화**를 신속히 추진하려는 취지
- TSA는 2026. 7월 **탬파·찰스턴·디모인** 3개 공항이 Gold+ 도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으나, 실제 운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2027년 시행을 목표로 검토·준비 중인 단계였음
- **검색인력 노조인 AFGE는 고용 안정성과 보안관리체계에 대한 우려**를 제기하고, Gold+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법 소송을 2026. 8. 5. 제기하는 등 논란이 지속

나. 기존 SPP(Screening Partnership Program) 보완으로 전환

- TSA는 「Horizon 25」 발표와 함께 Gold+를 별도로 추진하지 않고, 이를 기존 SPP를 개편·보완한 제도로 대체한다고 발표
- SPP는 민간 검색인력이 승객과 수하물 검색업무를 수행하되, TSA의 보안 기준·검색 절차·승인 장비를 적용하고 TSA의 감독을 받는 제도로 현재 미국 내 20개 공항에서 운영
- 민간업체가 검색 실무를 담당하더라도 TSA와 공항별 **연방보안책임자(FSD)**를 중심으로 보안감독과 사건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기존 SPP의 기본 구조
- **탬파국제공항**은 수개월간 보안·인력·기술·재정·법률 사항을 검토한 결과, Gold+ 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연방 TSA 직원에 의한 검색 체계를 유지하기로 2026. 8. 24. 결정
- 찰스턴·디모인 공항의 향후 처리방향과 개편된 SPP의 구체적인 장비조달·비용분담·민간업체 역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 후속 확인이 필요

□ 평가 및 진단

가. 전면 민영화 철회가 아닌 ‘통제 기반의 속도조절’

- 이번 조치는 민간검색제도 자체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, 검색 인력과 장비·관리기능을 함께 민간에 맡기려던 Gold+의 범위를 조정하고 검증된 SPP를 중심으로 재정비한 것으로 평가

- 「Horizon 25」도 **민관협력을 계속 확대**하고 개편된 SPP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, 민간 참여 확대라는 정책 방향은 유지하되 **추진방식과 통제 체계를 보완**한 것으로 판단
- 탬파공항이 Gold+ 검토 목적 중 하나로 **연방정부 섰다운 시 검색 업무의 연속성 확보**를 제시한 점을 고려하면, 운영 안정성과 기술 투자를 위한 **민간 활용 수요는 계속될 가능성**
- 다만 개편된 SPP의 표준계약, 장비 소유·관리방식, 비용부담 및 기존 TSA 인력의 전환 방안은 공개되지 않아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

나. 장비와 지휘권의 공적 통제 중요

- 검색업무의 위탁범위가 확대되더라도 보안기준·검색장비 규격·교육훈련·보안정보 관리 및 사건 지휘권은 **공공기관이 확고히 통제**할 필요
- 특히 보안사건이나 검색 실패가 발생할 경우, **책임 주체와 보고·지휘·감독체계를 일원화**하는 것이 항공보안의 기본 전제조건임을 보여주는 사례

□ C-UAS의 전략과제 반영

가. 월드컵 현장대응과 탐지장비 조달 추진

- TSA는 2026 FIFA 월드컵 기간에 연방·주·지방 관계기관과 C-UAS 합동 작전을 실시하였으며, 개막일인 6월 11일부터 6월 23일까지 **300대 이상의 무단 드론을 압수**했다고 공식 SNS를 통해 발표
- 또한 2026. 6. 16. 캔자스시티 작전에서는 연방항공보안관실(FAMS)·FBI·현지 경찰 등이 합동으로 드론과 조종기 8대를 압수하고, 드론 운용자 2명에게 경범죄 위반통지서를 발부
- TSA는 2026. 8. 14. 공항 통제구역 내 무단 드론 활동에 대한 현장 법집행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Axon by DEDrone RF-560 고정형·이동형 센서의 **단독계약 추진**을 사전 공고
- 해당 공고의 업체 의견 제출기한은 2026. 8. 31.이며, 현재는 계약체결 이전 단계로 도입 수량·금액·배치공항 등은 확정되지 않음

나. 항공보안 상시 업무로의 제도적 편입

- 월드컵 현장 합동운용, 공항용 탐지센서 조달 추진, 「Horizon 25」 전략 과제 반영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C-UAS가 특별행사 경비를 넘어 TSA의 상시 항공보안 업무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
- 특히 무단 드론 탐지 이후 연방항공보안관실·FBI·현지 경찰이 운용자를 확인하고 드론 압수와 법 집행 조치까지 연계한 사례는 장비운용과 기관 간 지휘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줌
- 다만 RF-560은 드론과 조종신호의 위치 등을 확인하는 RF 기반 탐지센서이므로, 이번 조달을 재밍·포획·격추 등 무력화 장비의 전면 도입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

□ 항공보안 측면의 시사점

가. 차기 국가항공보안 기본계획 반영

- 우리나라도 검색장비 첨단화와 승객 편의 증진을 하나의 통합 정책으로 추진하고, 신규 장비 도입 전 현장 시험·성능 검증·운영자 교육을 연계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
- 공항 C-UAS를 국제행사 기간의 임시대책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 항공보안 기본계획과 공항별 자체 보안계획에 반영하여 중장기 정책과제로 관리할 필요

나. C-UAS 관계기관 합동 교육훈련 강화

- 공항운영자·경찰·군·관제기관·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[탐지 → 상황전파 → 운항영향 평가 → 대응권한 확인 → 현장조치 → 잔해회수 및 증거보존]의 전 과정을 훈련할 필요
- 장비 조작교육에 그치지 않고 오경보 판단, 운항중단 여부 결정, 기관별 지휘·보고, 운용자 추적, 법집행기관 인계 및 사후평가를 포함한 도상 훈련과 현장훈련을 정례화할 필요

다. 국내 보안검색 위탁제도 개선시 검토사항

- 보안검색을 민간에 위탁하는 논의가 있을 때, 위탁 허용 여부만을 기준으로 접근하기보다, 국가와 공항운영자가 유지해야 할 장비·교육·정보·보안 사건 지휘권의 범위를 먼저 명확히 할 필요
- 또한 위탁계약과 운영규정에 장비 도입·유지관리, 검색 실패 대응, 검색 요원 교육·평가, 보안정보 관리 및 보안사건 지휘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

□ 결론

- 「Horizon 25」는 검색대 현대화와 여행객 편의를 함께 추진하면서, 검색 민간 위탁은 TSA의 장비·보안 기준·감독 및 지휘체계가 유지되는 범위에서 재정립한 중장기 전략
- Gold+의 대체는 민간검색 자체의 철회라기보다 장비와 관리권까지 포괄하는 급진적 모델을 조정하고, 기존 SPP를 보완하여 민관협력을 계속 추진하려는 정책적 속도조절로 평가
- 우리나라도 검색 위탁 논의가 제기된다면, 확대 논의에 앞서 장비와 지휘권의 공적 통제기준을 선제적으로 확립하고, C-UAS를 정책·장비·교육훈련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상시 대응체계로 고도화할 필요

※ 참고자료

- [TSA 「Horizon 25」 공식 발표](#)
- [TSA Screening Partnership Program 공식자료](#)
- [TSA 월드컵 C-UAS 합동작전 발표](#)
- [SAM.gov Dedrone RF-560 조달공고](#)
- [탐파국제공항 Gold+ 검토결과](#)